
정책참고자료

2017-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	4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장, 시민단체 대표와 사회 취약분야 권익보호 방안 논의	—————	6
3	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8
4	교육부		
	2017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15
5	미래창조과학부		
	「도전! K-스타트업 2017」 국내최대규모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	24
6	문화체육관광부		
	‘미리 보는 패럴림픽’ 제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개최	—————	31
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소속기관, 현장·정책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	—————	34
8	환경부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따라 나들이 가세요	—————	58

9 고용노동부

장애인 공무원 준비, 이렇게 하세요! _____ 61

10 여성가족부

2017년 취업사관학교 운용기관 선정 _____ 62

11 국토교통부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_____ 66

12 해양수산부

명태야, 다시 만나 반가워! _____ 72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 2월 27일부터 5주간,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개학기를 맞아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국민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소속 기관, 자치단체 등 71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 특히, 전국의 초등학교 6,001개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 유해 업소, 식품, 불법 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단속, ②어린이 통학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③어린이 사고 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④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교육영상물 배포 및 캠페인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①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의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②신·변종 업소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식중독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②학교급식소,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①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 ②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고 정비한다.
-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자치단체의 특별 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하여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법 등에 대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그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라며,
- “초등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인을 점검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2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장, 시민단체 대표와 사회 취약분야 권익보호 방안 논의

23일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대표자 간담회 열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가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6개 분야 19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회 취약분야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 발족한 민관협의체이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단체*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 여성·다문화가정·소비자·안전관련 분야의 문제와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성 위원장은 제도개선·고충민원 처리 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생활안전연합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활동에 애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 성영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회적 약자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며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가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수) 10시 현대 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현 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하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개편하는 한편,
 - 정부 역할을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둔 '개방·연결 혁신플랫폼'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적 비전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유 부총리와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IC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제조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소내 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 유 부총리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통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원격 제어.관리하는 시연과정을 관람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참고> 현대위아 의왕연구소 개요

- 연 혁 : '14.5월 설립
- 주요시설 : 연구소, 공작기계 기술지원 센터
- 연구분야 : 공작기계(스마트공작 기술, 내구성 시험), 차량부품(엔진 등)
- 주요성과 : 현대 머신 모니터링 시스템(HW-MMS) 개발
(클라우드 기반 생산시설 원격제어·관리 시스템)

[별첨 1] 제1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모두발언

[별첨 2]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개요

- 지금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에 직면해 있음
 -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격 제기된 지 1년도 안되어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화두로 급부상하였음

- 초(超)연결.지능화를 특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지수적(exponential) 발전” 속도를 보이며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방식에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지난달 라스베가스 국제가전박람회(CES)에서는
세계 우수기업들이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적으로 출시하였고,
 - 일부 선진기업은 로봇과 3D 프린팅을 통해
스피드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의 생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생산혁명을 구현하고 있음
 - 기술, 산업적 변화 외에도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 문제가 최대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서두르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그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임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民-官 합동의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민간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5년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하겠음
- 특히,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
기업.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겠음
-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 첫째, 주요국의 대응현황,
한국의 現 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겠음
 -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토록 하겠음
- 둘째,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음
 -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음
 - 아울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제도를 개선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겠음
 - 우리 산업의 스마트화, 플랫폼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나가겠음
- 셋째, 정부의 역할을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둔
'개방·연결 혁신플랫폼'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앞으로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임
- 이러한 정책과 노력들에 더하여
민간부문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오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한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민과 官이 힘을 합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1] 위원회 설치

- (근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 (기능) 4차 산업혁명의 범부처 대응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 조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정책방향 설정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단기 정책과제 선정.심의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

[2] 위원회 구성

- 경제부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9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은 경제부총리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15명
 - * 필요시 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 관련 부처 장관도 참석 가능
 - 민간위원은 기술, 경제.산업, 고용.사회 분야 전문가 14명

【 민간위원 명단】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이민화	KAIST 초빙교수
·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학과 겸임교수	·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	· 최원식	맥킨지코리아 대표

[3] 운영계획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2017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집중 신청 기간 3.2(목)~3.24(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방과후수강권 등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 원, 90만 여명 수혜 예상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 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참고3] 2017년도 시·도교육청 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7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53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사업 별·학교 급 별 지원 내용 >

기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초	부교재비 41,200원	-	-	급식비(63만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중		학용품비 54,100원	-	방과후학교	
고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34만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설치(120만원) 인터넷통신비(21만원)	
지원 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 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제외), 공통항목인 입학금·수업료는 교육급여로 지원

- '17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40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9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 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17년 3월 2일 개통 예정

참고 1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관련 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9.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

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10.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17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13. 작년까지는 교육비를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상시신청으로 바뀌어 달라진 점이 있나요?

- '16년 12월 사회보장위원회 의결(국무총리 주재)로 기존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상시 신청으로 변경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신청 시에 소급하여 지원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2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구 분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주 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예산 ('17년)	총 2,540억원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7,781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기초 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 - 고교 교과서(연 9.35만원) - 중·고 학용품비 (연 5.41만원) - 초·중·고 부교재비 (연 4.12만원) 	<p>시·도교육청별로 다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 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 (연 63만원)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PC 설치,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참고 3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지역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지역 등 제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서울	60%	60%	60%	-	의료, 한부모
부산	60%	80%	50%	의료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구	60%	초·중 136% 고 104%	50%	의료	의료
인천	60%	52%	50%	-	의료, 한부모
광주	60%	60%	60%	의료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대전	60%	60%	54%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울산	60%	중·고 135%	60%	의료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일부)
세종	66%	60%	52%	교육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경기	60%	60%	60%	-	의료, 한부모
강원	60%	52%	52%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충북	60%	60%	60%	교육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충남	60%	52%	56%	의료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전북	64%	52%	6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전남	60%	60%	50%	-	의료, 한부모
경북	60%	56%	50%	-	의료, 한부모
경남	60%	56%	50%	-	교육, 한부모 법정차상위
제주	60%	60%	60%	의료	교육, 한부모

※ %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의미함

※ 가구의 경제 수준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 법정자격대상자(의료·교육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월 소득인정액 관련 중위소득 환산표 >

(단위 :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 기준 중위소득 (복지부고시)		281	364	446	529	612	694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140	182	223	264	306	347
	중위소득 52%	146	189	232	275	318	361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168	218	268	317	367	416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금액 × 해당 %

「도전! K-스타트업 2017」 국내최대규모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 대학생, 현역 군인도 참여하여 아이디어 하나로 총 상금 10.8억원에 도전 -
- 미래부·교육부·국방부·중기청 4개부처 합동 -

-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전국적인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한 국내 최대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7」이 개최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 국방부(장관 한민구),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대책’(1.17, 창업활성화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개부처 공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7」 개최를 공고(2.28)하였다.
 - ‘창업 활성화 대책’에는 여러 부처가 개별로 추진하던 공모전 등을 연계하여 수상혜택을 확대하고, 통합 홍보하는 등 임팩트 있게 추진하고, 창업 붐 확산을 위한 주요 행사를 매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상반기에 집중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도전! K-스타트업 2017」이라는 통합 브랜드 하에 4개 부처별 리그를 거쳐 우수 창업자(100여개팀)를 발굴한 후, 9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본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전 과정은 TV 등을 통하여 올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이다.
 - * 향후일정: 참가모집(3~5월) → 부처별 리그(5~6월) → 엑셀러레이팅(7~9월) → 통합본선(9~11월) → 시상식(11월말)
 - 각 부처별 리그는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부(혁신리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 2017’은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창

업자와 센터별 특화분야 창업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중기청(창업리그)의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지방 중기청의 추천팀 (60팀)으로 구성된 지역리그와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대학 등의 추천팀(60팀)으로 구성된 특별리그 등 2개의 트랙을 운영하여 통합본선 출전팀을 선발한다.
- 교육부(학생리그)는 ‘창업유망팀 300’이라는 이름으로, 산학협력 선도 대학(LINC+) 등 전국 대학으로부터 창업유망팀 300팀을 선발하고, 성장단계별 집중 육성·지원을 통해 통합 본선에 진출할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 국방부(국방리그)의 ‘국방 Startup 챌린지’에서는 중기복무자 이상으로 전역 3년 이내의 장교 또는 부사관이나 ‘18. 6. 30.이전 전역 예정인 병사를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모집한 후, 창업교육과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을 통해 유망 창업자(본선진출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부처별 예선리그 대회 >

예선리그	혁신리그	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주관부처 (주관기관)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창업진흥원)	교육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국방부 (사단법인 Spark)
대 회 명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	대한민국 창업리그	창업유망팀 300	국방 Startup 챌린지
모 집	창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K-Startup (www.k-startup.go.kr)	대학별 추천 (www.u300.or.kr)	국방 인트라넷

□ 3.27(월)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는 5월 8일 (월)부터 약 7개월 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도전! K-스타트업 2017」은 대상 2억원, 최우수상 1억원을 포함하여 총 상금 10.8억원*에 도전하는 열띤 창업경연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 본선진출팀(100여개) 대상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지원금(각 5백만원, 총5억원) 및 통합본선 대상1(2억원), 최우수상1(1억원), 우수상8(각 3천만원), 특별상4(각 1천만원) 등 예정

- 시상 이후에도 수상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혁신센터를 통해 집중멘토링과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창의 상품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 특히, 지난 대회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보증보험 등의 기업이 참여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지원내용 추후 확정)을 함께 할 예정이며, 액셀러레이팅기관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KIC와 연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등 참가팀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작년에 개최된 “도전! K-스타트업 2016”에는 총 6,700여 팀이 신청하였으며, 대회 전 과정은 TV를 통하여 방영(KBS1, '16.6월~9월)되었다. 대회 입상팀들은 각 부처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도전! K-스타트업 2016”의 대상(대통령상) 수상팀인 “베이글랩스”(대표 박수홍, 스마트 줄자 베이글 개발)는 대회기간 도중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킵스타터”에서 135만달러, “인디고고”에서 40만달러 펀딩에 성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스타트업이 되었다.
 - 국무총리상을 받은 “네이처글루텍”(대표: 김명호, 종합접착단백질 기반 메디컬 생체접착제 개발)의 경우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28억 투자를 유치하고 양산을 위한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우수상을 받은 “이놈들 연구소”(대표: 최현철, 손끝으로 통화할 수 있는 스마트 시계줄 개발)의 경우에도 중국 창업방, 디티캐피털로부터의 투자유치와 함께 “킵스타터” 147만달러 펀딩에 성공하였다.
- 2월 28일(화) 서울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17」 첫 번째 설명회가

열린다. 이후, 전국에서 지역설명회가 40여회 진행될 예정이며, 대회 설명을 비롯하여 지난 대회 수상자 또는 유명 창업자의 강연을 통해 경진대회 참가경험, 창업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에서는 민관 주요 창업경진대회 통합 설명회를 비롯하여 벤처투자컨벤션, 대학 창업팀 경연대회, 대학발 창업 지원 성과전시 등이 함께 개최된다.
- 자세한 지역설명회 일정은 참가접수가 이루어지는 창조경제타운(<http://www.creativekorea.or.kr>)과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 ‘창업유망팀 300’ 홈페이지(www.u300.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회 개요

- (목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조경제의 주역을 발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 제공
- (참가자격)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14.1.1 이후) 창업자*(팀)로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팀)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참가 제외기준 >

- ◇ 미래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중기청 「대한민국 창업리그(舊실전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 동일 아이템(유사 아이템 포함)으로 타 창업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참가분야) 제한 없음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은 제외

- (일정) 참가모집(3~4월중), 부처별 리그(5~8월말), 통합본선(9월), 오디션 방식의 최종전(9~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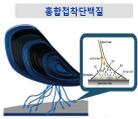
□ 지원 사항

- (상금) 총 상금 10.8억원

- 각 부처 예선통과팀에게 5백만원 내외의 상금 지급(총 5억원)
- 최종전을 통해 대상1(대통령상, 2억원), 최우수상1(국무총리상, 1억원), 우수상8(장관·청장상, 각 3천만원), 특별상*4(각 1천만원)

* 본상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리그·국방리그 참여자 중 각 2팀씩 선발 예정

- (사업화 지원) 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멘토링, 판로·마케팅 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지원, 민·관 창업 지원사업 연계, 창조경제박람회(11월 예정) 전시 등

팀명	상격	아이템 내용 및 주요 성과	사진
(주)베이글랩스 (박수홍)	대상 (대통령상)	스마트 줄자 베이글 · 혈,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하여 길이를 측정·기록(내장 메모리 또는 스마트폰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 줄자 · 곡면·신체 사이즈 등의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맞춤형 의류 주문·제작)에 활용 가능 [주요 성과] · 2016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컵 내셔널 챔피언쉽 5위권 · 킥스타터 135만 달러 펀딩(역대 상위 0.04%) · 인디고고 40만 달러 펀딩 · 201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히트예감 브랜드 부문 선정	
(주)네이처글루텍 (김명호)	최우수상 (총리상)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메디컬 생체접착제 · 홍합 유전자를 배양하여 우수한 성능의 의학용 생체접착제 ('25년 시장규모 2~3조 예상) · 원천 소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안전성시험(식약처)을 거쳐 현재 임상 준비중 [주요 성과] · 네이처글루텍 생산시설 준공 · 아이디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28억 투자유치	
오비츠코리아 (김종윤)	우수상	휴대용 검안기 · 개발도상국·취약계층을 위하여 저렴한 휴대용 검안기(시력·안압 등 안구건강 측정)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구질환 예측·관리 서비스 제공 예정 [주요 성과] · 방글라데시 초소형 시력검사기 보급	
이놈들연구소 (최현철)	우수상	손끝으로 통화할 수 있는 스마트 시계줄 · 손가락 등 신체 부위를 통해 소리를 전송하는 스마트 시계줄 · 자체 개발한 Body Conduction Unit을 통해 증폭된 소리가 손끝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되는 원리 [주요 성과] · 2016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컵 에이스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부문 수상 · 2016 다국적 스타벤처 데모데이 대상 · 킥스타터에서 147만 달러 펀딩 · 중국 창업방, 디티캐피탈파트너스 투자유치(금액 비공개)	
미다스디자인 (이진아)	우수상	공병을 활용한 블루투스 스피커 "cork" · 버려지는 병을 활용하여 스피커의 음질을 향상시키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제품 [주요 성과] · ICT 유망 창업 벤처기업 2016 K-Global 300 선정 · 와디즈 - 크라우드펀딩 목표금액 2,500% 달성 · 2016 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사업 선정 · 미국법인 설립, 국내 특허 등록, 해외 PCT 출원 · 16년 인포뱅크 1억원 투자유치 및 굿 디자인 2016 선정 · 롯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2,000만원 투자 협약	

※ 아래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확정된 일정은 창조경제타운(<http://www.creative.or.kr>)과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서 확인 가능(지속 업데이트 예정)

구분	일 자	시간	장 소
강원	3. 03. (금)	12:0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Connect Square
	3. 27. (월)	18:3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Connect Square
경기	3. 16. (목)	14: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GIGA홀
	미정	미정	단국대학교
경남	3. 09. (목)	17:00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3. 30. (목)	14:00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3. 16. (목)	14:0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혁신룸
광주	3. 07. (금)	14: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존
대구	3. 16. (목)	11:3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3. 25. (목)	9:30	구미 금오산 호텔
대전	3. 02. (목)	14: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3. 09. (목)	14: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3. 16. (목)	14: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3. 23. (목)	14: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3. 30. (목)	14:00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라운지
부산	3. 10. (금)	14: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해운대)
서울	2. 28. (화)	12:0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국제 회의장
	3. 16. (목)	18: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3. 27. (월)	18: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3. 31. (수)	19: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세종	3/14 or 15	14:0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열린공간
울산	3. 23. (목)	13:00	미정
	3. 29. (수)	미정	미정
인천	3. 09. (목)	17:00	송도본원 7층 아이디어 스페이스
	3. 29. (수)	14:00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별관 A동 5층
전남	3. 20. (월)	16:30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3. 31. (금)	16:30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3. 02. (목)	16:0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 10. (금)	14:0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 14. (화)	11:0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 23. (목)	16:0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4. 07. (금)	11:00	남원 스위트호텔
제주	3. 16. (목)	미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회의실
충남	3. 15. (수)	15:3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카페룸
	3. 22. (수)	15:3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카페룸
충북	3. 29. (수)	13:00(변동가능)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세미나실
포항	3. 20 (월)	15:00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세미나실
빛가람 (나주)	3. 28. (화)	14:00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 유레카존

‘미리 보는 패럴림픽’ 제3회 평창 패럴림픽 데이 개최

- 2017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개막 연계, 공연 및 체험 행사 등 열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와 함께 3월 4일(토) 낮 12시 30분 강릉 컬링센터에서 ‘제3회 2018 평창 패럴림픽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리 즐겨라, 느껴라 열정의 패럴림픽!’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앞으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패럴림픽(‘18. 3. 9. 개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패럴림픽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인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개막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 케이트 케이스네스(Kate Caithness) 세계컬링연맹(WCF) 회장, 이희범 평창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나경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상임위원, 최명희 강릉시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김연아 홍보대사와 체육계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식행사는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김연아 홍보대사의 컬링스톤 시구, 주요 인사의 휠체어컬링 경기 체험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모습을 담은 패럴림픽 초대 영상을 상영해 앞으로 1년여 남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 외에도 행사장 주변에서는 강릉 그린실버악단의 흥겨운 연주와 더불어 패럴림픽 종목 체험관과 조직위, 강원도, 강원도문화도민협의회 등의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장 내에서는 아이돌가수(에이핑크)의 축하공연과 패럴림픽 공식 기념품 등, 총 700여 개의 풍성한 경품을 지급하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여 이번 행사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은 “2018 평창패럴림픽은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불편 없이 대회에 참여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목표로 한다. 이에 장애인들이 대회 시설과 식당, 화장실 등 다양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1년 남은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패럴림픽 데이는 패럴림픽 정신 확산과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서 창안해 2003년부터 시작된 특별 행사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서울 광화문과 2016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제1, 2회 행사가 각각 펼쳐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효과를 거뒀다. 패럴림픽 데이는 이번 3회를 끝으로 3년간의 행사를 마무리한다.

제3회 패럴림픽 데이 행사를 관람하려면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 대회’ 입장권(무료)이 필요하며,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받을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배부처에서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붙임 1. 제3회 평창패럴림픽 데이 개최 계획

1. 행사개요

- **(추진 목적)** 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패럴림픽의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대회 테마를 가지고 3년간 완성하는 형태로 기획
 - * 제1회 행사('15. 3. 14.~15./서울 광화문광장), 제2회 행사('16. 3. 9./춘천 의암빙상장)
- **(일시/장소)** 2017. 3. 4.(토), 12:30~14:30 / 강릉 컬링센터
 - *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17.3.4.~11.) 개막경기와 연계
- **(참가규모)** 3,000여 명
 - * 주요 참석인사 : 문체부 2차관, 평창조직위원장, 세계컬링연맹회장, 강원도지사, IPC집행위원(나경원), 강릉시장, KPC 회장 등
- **(행사주제)** “미리 즐겨라, 느껴라 열정의 패럴림픽!”
Enjoy and Experience the Passion of the Paralympic Games in advance!
- **(행사내용)** 식전행사, 공식행사(초대영상 상영, 휠체어컬링 경기 체험 등), 부대행사

2.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소 요	주요내용
식전행사	12:30~12:55	25'	패럴림픽 홍보영상 상영 및 식전공연(장애인 공연팀)
	12:55~13:00	5'	주요 내빈 입장
공식행사	13:00~13:10	10'	선수단 입장
	13:10~13:15	5'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13:15~13:18	3'	환영사(조직위원장)
	13:18~13:21	3'	대회사(WCF 회장)
	13:21~13:44	23'	축사(IPC 위원장, 문체부 2차관, 강원도지사, IPC 집행위원, 강릉시장, KPC 회장) ※ IPC 위원장 영상축사
	13:44~13:47	3'	패럴림픽 초대영상 상영
	13:47~13:52	5'	컬링스톤 시구자 소개 및 시구 * 김연아 홍보대사
	13:52~13:57	5'	선수단 퇴장
	13:57~14:07	10'	주요인사 휠체어컬링 경기 체험
	14:07~14:30	23'	축하공연(일반공연팀, 아이돌가수) 및 폐회
식후행사	14:30~14:50	20'	경품증정 퀴즈이벤트(전문 MC 진행) * 정빙 및 연습경기시간 활용
오후경기	15:30~18:00	150'	휠체어컬링 예선경기 * A시트(대한민국:미국), B시트(노르웨이:러시아), C시트(스코틀랜드:중국), D시트(핀란드:스위스)

농식품부 · 소속기관, 현장·정책 중심 조직으로 재정비

- ◇ [본부 : 정책인력 확충] 반려동물 · 농촌관광 · 가뭄 등 사회적 이슈 대응 인력
- ◇ [소속기관 : 현장조직 강화] 가축질병방역센터 2개소(청주 · 광주) 증설,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 정규조직화 등 조치

《 주 요 내 용 》

- ◆ (본부) 조직 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농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부 局간 과·팀을 일부 조정*(3개과)

* ① 경영인력과 : 농촌정책국 → 농업정책국, ②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농업정책국 → 식량정책관, ③ 농기자재정책팀 : 식량정책관 → 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

- 아울러, 반려동물 복지 개선 및 산업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가뭄, 지진 등)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1팀 9명 증원)

*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신설(2명), ②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육성(3명), ③ 농촌관광 활성화(2명), ④ 농업가뭄 및 농업용저수지 등 지진대응(2명)

- ◆ (소속기관) 가축질병(AI·구제역 등) 및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 축산물이력제 및 쌀직불금 관리 강화, 한국농수산물대입학정원 확대에 따른 교수·지원 인력 등 현장지원 조직 강화(4개과·센터 신설, 33명 증원)

* ①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② 충북·전남권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각 1개소씩 신설(5개→7개)
③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신설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현장중심의 인력 보강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21)·시행(228)

- 이번 개편의 특징은 농식품부 본부의 경우 국·과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등 새로운 분야에 소요인력을 보강했다.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물대학, 국립종자원의 필요인력을 보강했다.

□ 먼저, 농식품부 본부 조직변동사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재정비) 조직내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 내 局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다.

해 당 과	변 동 사 항	사 유
◦ 경영인력과	농촌정책국 → 농업정책국	◦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농산업 정예인력육성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정책국 → 식량정책관	◦ 쌀 직불제 운영과 연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농기자재정책팀	식량정책관 → 창조농식품정책관	◦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하여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산업의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

② (신규정책 소요반영) 반려동물 보호 및 산업육성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 (동물복지) 동물복지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내에 전담팀(신규 3명 + 기존 2명)을 설치·운영

* '20년까지 반려동물 등록 1.5백만마리, 관련산업 시장 3.5조원, 일자리 41천개 창출 목표

- (농촌관광) 삶의 질, 건강·여가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에 따라 농촌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보강(2명)

- (기후변화·재난 대응)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지진 1명, 가뭄 1명) 보강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신설) 경기도 수원(옛 농촌진흥청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관련 전시체험관 건립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농촌정책국내에 한시조직(3년, 신규 2명+기존 3명)으로 신설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농업관련 전시유물 수집, 전시기획, 체험·교육을 통해 농업의 가치·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다음으로 농식품부 소속기관 조직변동사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질병·식물병해충 대응)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가축질병, 새로운 식물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대응 기구·인력을 강화하였다.

-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 AI 상습발생지역인 서해안 벨트에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충북·전남권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각 1개소씩 증설(현행: 5개 → 확대: 7개)하고, 인력도 증원(각 3명씩 총 6명)
- 또한, 아열대 식물병해충(오리엔탈 과실파리류 등)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주도에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신설하는 등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강화를 위한 인력도 보강(5명)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정신뢰 제고)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거짓 표시 등에 대한 지도·단속, 쌀직불제 부정수급 방지 관리 등을 위한 인력도 보강(7명)한다.

-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축산물이력제가 소고기('09.9)에서 돼지고기('14.12)까지로 확대되고,
- 쌀직불제를 포함한 각종 직불제의 이행점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16.1)됨에 따른 인력증원 소요반영

- ③ (한국농수산대학 : 농식품산업인력육성) '17년 1학기부터 입학정원이 확대(390명 → 470)됨에 따라 늘어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수 지원 인력을 증원(11명)하고,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기획조정과를 신설(신규 1명, 기존 6명) 한다.

- ④ (국립종자원 : 품종보호 강화) 1품종 異명칭 사용으로 종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품종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대응 등을 담당할 인력(1명)을 보강한다.

※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기구신설·인력증원 세부내용 붙임1 참고,
농식품부 조직개편 전후도 붙임2 참고

- 김재수 장관은 “농식품부와 소속기관이 새로운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I. 구 제 역

가 발생 상황

- (발생 현황)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추가 발생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4건(젓소1, 한우3),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젓소)이었으며, 살처분은 17농장 1,203두이다.

지역	축종/두수	백신접종	신고일	혈청형	항체형성율
보은	젓소/195	자가	2.5일	O	A형 15%, O형 20%
정읍	한우/49	자가	2.6일	O	A형 5%, O형 5%
연천	젓소/100	자가	2.8일	A	A형 90%, O형 52%
보은	한우/151	자가	2.9일	O	A형 38%, O형 38%
보은	한우/68	자가	2.11일	O	A형 59%, O형 76%
보은	한우/171	자가	2.12일	O	A형 83%, O형 87%

- 보은·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고 연천은 A형으로 소에 백신접종 중인 유형*, 2가지 유형 동시 발생은 처음

* 접종 유형: (소) O+A, (돼지) O / 미접종 유형: Asia1, C, SAT 1·2·3형

-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주로 O형이며, A형은 '10.1월 소에서만 발생한 이후 그간 발생하지 않았다.

* 총 8차례 발생: (O형) 7차례, (A형) 1차례

※ 해외발생 : ('16) < O형 >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313건, < A형 > 몽골, 사우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0건 발생

- (발생 원인) 유전자 분석결과, 보은·정읍 O형은 '15년 방글라데시·'16년 러시아, 연천 A형은 '16년 베트남·미얀마 등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아,

- 국내 잔존 바이러스가 아닌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농장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일부 농가는 백신의 보관·취급·접종 과정에서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상황 분석 및 과제)** 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에서 발생하고 기존 발생유형(O형)과 다른 A형이 동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2.9일)

* (2.5일) 관심 → 주의, (2.6일) 주의 → 경계, (2.9일) 경계 → 심각

- 연천 A형 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보은 방역대 내에서 산발적 발생을 억제하며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방역 조치

□ **(대응 체계)** 정부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간 공조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안전처, 행자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약처

□ **(그간 방역 조치)**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① 전국 소 일제접종(2.8~2.12), ②발생 도에서 타시도 우제류 반출금지(2.6~2.15), ③농장간 생축이동 금지(2.9~2.18), ④가축시장 폐쇄(2.9~2.18)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일제 백신 접종)** 전국의 소 사육 농가(283만두*)에 일제접종(99.4% 완료)하였고 A형 발생으로 연천과 인근*의 소는 O+A형을

긴급 접종(2.8-2.12)을 하였다.

- * 전국 소 330만두 중 제외(47만두) : i) 기 발생지역(보은,정읍)의 소, ii) 접종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소, iii)출하예정 2주이내의 소
- * 14개 시·군: (경기) 김포,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연천, 양주, (강원) 철원, 화천, 춘천

< 지역별 일제 백신 접종 현황(2.12) >

- △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백신접종 완료
- △ 강원도는 2.13일 오전 중, 제주도는 2.14일까지 완료 예정
- ※ 전국 일제 백신접종 완료 1주일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 예정

-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동원(1,200개반 3,600명)하여 접종, 50두 이상 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접종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요령, 백신 보관방법 등 축산농가 교육,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 * 리후렛(68만부), SNS문자발송, 언론매체(신문 및 방송)를 통한 홍보 등 추진
- (추가 방역 조치) 백신접종 항체형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생 시·도 우제류의 타 지역 반출금지 기간을 2.19일까지 연장 조치*하였으며, 지역별 추가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 (기존) 충북·전북 2.13일, 경기 2.15일 → (연장) 2.19일
- (연천) 소에서 돼지로의 A형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소·돼지 전용 도축장을 지정하고 사료 운반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돼지농장 군 병력 배치, 축산 관련 차량 운행도로 집중 소독(농협 방제기3대, 군 제독차량 2대) 실시한다.
 - 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상주 특별방역팀을 운영하고, 축산차량은 세차·소독 후 소독 필증을 휴대한 경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출입토록 조치하였다.

- (보은) 3Km 이내 방역대 내 산발적 발생을 억제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 특별방역팀(5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등 지도·점검(2.12~)을 강화토록 조치하고,
 - 보은군의 발생지역 10km내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보은군 사육 소가 최근 2주간 출하된 도축장 일제 소독(2.13~14)하도록 하였다.

다 백신 적합도 및 수급

- (백신 적합도) 정부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금번 발생한 바이러스의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분리 등 백신 주에 대한 매칭 검사에 착수하였다.
 - 세계표준연구소(퍼브라이트 연구소)에 2.9일 바이러스 시료(O형과 A형)를 송부하였고 매칭실험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천 A형의 유전자 분석과 백신 적합도 >

△ 연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 ASIA Sea-97형에 속하며 동 유형에 속하는 13개 분리주에 대한 사용중인 백신주(A22 IRQ)와의 적합성 분석을 검토한 결과, 11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연천지역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참고 6]

< 농장의 항체형성률 의미 >

- △ 항체 형성률은 검사한 가축들에서 항체가 형성된 가축을 백분율하여 나타낸 수치이며, 백신 또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들 2가지 요인에 의해 항체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O+A 백신 접종된 경우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의 상대편 항체 형성률로 백신 항체 형성율을 판단함
- △ (예) 연천 발생농장 : A형 구제역 발생, A형 항체 형성율 90%이고 O형 항체 형성률 52.3%이면 O형 항체 형성율 52.3%가 백신 항체형성율로 추산 (A형 항체 형성율은 바이러스와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율)
- △ (예) 보은 발생농장 : O형 구제역 발생, A형 항체 형성율 38%, O형 항체 형성률 52.3%이면 A형 항체 형성율 38%가 백신 항체 형성율로 추산

- (백신 수급) 현 발생 상황에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으나, A형의 구제역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백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 백신 재고량은 O+A형은 99만두분, O형은 830만두분이며, 계약된 예정량인 O+A형은 160만두(2월말~3월초), O형은 320만두분(2.17, 2.24일)이 도착할 예정이며,
 - * 연간 백신소요 : (O+A형) 700만두분(월 58), (O형) 3,200만두분(월 267)
- 또한, 영국 M사로 부터 O+A형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A형 백신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대한 적합성 분석 후 수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여 '16년 8월부터 기존의 영국 이외 러시아, 아르헨티나에서 백신이 수입되고 있다.

라 국경 검역 강화

- (공항만) 해외 여행객 증가 추세로 해외로부터 구제역·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부터 검역 인력을 확대 운영 중이며,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입국 공항·만에서 소독 조치를 하고 있다.
 - 세관과 합동으로 휴대품 검사를 매주 335비행편에서 360편이상으로 강화하고, 구제역·AI 발생국 등 운항 노선에 대해서는 검역 탐지견 추가 투입(4개 공항만→12개 공항만) 등 검역을 강화 중이다

※ 해외여행객, 외국인 방문자 등 출입국 동향

구 분	2010년	2016년	비교('16/'10년)
입국자	21,545천명	40,073천명	186% 증가
출국자	21,443천명	39,915천명	186% 증가
축산관계자	50,302명('12년)	89,328명	178% 증가
산업연수생	33,503명	55,545명	166% 증가

법무부 출입국 정보, 검역본부 통계('11.7월부터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제도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검역홍보) 해외 축산농장 방문 자제, 출입국시 신고, 입국 후 5일간 농장 출입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17.6.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입국 신고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출국 신고 위반시 : 300만원 이하

II. 조류인플루엔자

가 발생상황 분석

□ (발생 현황) '16.11.16일 전남 해남·충북 음성 발생 이후 '17.2.10일까지 341호의 가금농장에서 발생(H5N6 340, H5N8 1) 하였으며, 살처분은 821농가에 총 3천3백14만 마리*이다.

* (산란계) 2,362만, (오리) 247만, (육계, 토종닭) 275만, (메추리등) 430만

○ '17.2.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7일째 없는 상황이다.

** 의심신고(건/일): ('16.12월) 6.9 → ('17.1월) 0.7 → ('17.2.1~10일) 0.1

※ (동원인력) 살처분·매몰 33,456명, 이동통제초소 212,957명 (군인·경찰 17,331명)

○ 금번 김제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H5N8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8(안성천 등)과 유전자가 99%이상 동일한 것으로,

- '16년 중반부터 '17년까지 인도,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발생한 H5N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15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8과는 구분되어 야생조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상황 분석) 2월은 야생철새로 부터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 되고 지역별로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로서

* 야생조류 AI 검출은 55건(H5N6 47, H5N8 8)중 2월에 11건이 검출(H5N6 6, H5N8 5; 확진일 기준)

○ 3월까지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총력 방역이 필요하다.

나 주요 방역 조치

□ **(서해안 방역강화)** 철새 주요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 가금 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중점방역 관리지구*(철새도래지 반경 10km)내 가금위험농가(닭 1,719농가, 오리 480농가) 등 방역 강화를 조치하였다.

* 경기(8개 시군구), 충남(8), 전북(6), 전남(6), 충북(5), 인천(4), 광주(2), 세종 등 8개시도

□ **(취약농가)** 전국 방역 취약농장*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일 이상 현장 점검하고, 농가 차단방역 등 교육을 실시한다.

* 취약농장: 고령(70세 이상), 장애인, 부모 등 경영이 어려운 농가, 청둥오리 등 특수가금 사육농가, 잔반급여 및 방사형 소규모 농가 등

- 또한, 발생농장(341개)에 대한 시군별 사후관리팀에서 발생 농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 지자체별 발생농장 잔존물(분변, 왕겨, 깃털 등) 처리 및 소독 실시 여부 등 점검, 중앙기동점검반에서 사후관리 이행실태 확인 점검 및 관리

□ **(사후관리)** 현재까지 방역지역은 총 139개소이며 방역조치가 완료된 23개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 방역대 해제지역 : 전북 김제 2, 정읍 6, 부안 1, 경기 이천 1, 양평 1, 광주 1, 과천 1, 충남 서산 1, 충북 옥천 1, 청주 1, 충주 1, 음성 1, 전남 장성 1, 해남 1, 진도 1, 니주 1, 구례 1

- AI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해제 후 가축 재입식 4단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하고, 입식 전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입식시험을 중지한다.

* ① 농장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 방역관 점검 → ② 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 → ③ 시·군 입식시험 → ④ 농식품부(검역본부) 승인

다 AI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추진상황)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전 대응시스템 구축, 농장 방역 및 초기대응 강화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중이다

* 주요 건의사항: (가칭)방역세 및 동절기 휴업보상제 도입, AI 반복 발생농장 축산업 제한, 위기경보 간소화 등

① (사전 대응시스템) 바이러스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 강화, 야생조류 예찰체계 정비,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방역대 사전 설정 등 발생 이전 대응역량 제고

② (농장 방역)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등 지도·점검 강화, 차단방역기준 마련 등 농장단위 방역 강화

- 낙후·밀집사육지역 재편, 반복 발생농장 및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업 허가 제한,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 등 생산구조 개선

* 케이지: (기존) 0.05㎡/마리 → (개선) 0.075(기존 농장은 5~10년 유예)

- 계란수집상인의 농장 출입 제한 등 유통체계 보완

* 1회용 난좌 재사용 및 나무 파레트 사용 금지

③ (초기 대응) 단시간 내 AI 발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기단계 개선 및 민·관·군 총력 대응 등 추진

-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및 랜더링 확대,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관리 강화 등 환경 부하 감소

④ (추진체계) 살처분 보상금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역기관 간 기능 조정 및 방역 현장 조직·인력 확충 추진

□ (향후계획) 정부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할 것이다.

Ⅲ. 피해 농가 보상 및 축산물 수급

가 피해 농가 보상

- (살처분 보상금) 정부는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되, 감액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구 분	소요추정액	교 부 액	집 행 액*
구제역	17농가 45억원	-	-
A1	821농가, 2,612억원	2,009억원	1,223억원*

* 구제역은 보상평가 중임 ** A1 살처분 보상금의 농가 대비 90% 집행(747농가)

- (생계안정자금) 정부는 입식 지연에 따라 살처분 관련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10.5억원 기지원)하고 있다.

*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월 257만여원)의 3~6개월분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축산정책자금) 살처분·이동제한 대상 농가에 대해 축산 정책 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축산물 수급

- (수급 동향)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돼지고기 및 우유 등의 수급에 구체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백신정책 실시 후, '14~'16년 구제역 발생에도 수급 문제는 없었음

- (공급량) 2.12일 기준, 살처분 마릿수는 1,203마리로 전체 사육 대비 0.02~0.1%에 불과하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구 분	한우	육우	젖소	합 계
살처분(A, 마리)	746	29	428	1,203
전체(B, 천마리)	2,730	152	418	3,300
비율(A/B, %)	0.03	0.02	0.1	0.04

□ (소비자가격) 한우·돼지고기 가격은 전년·전월과 비교시 하락세이며, 우유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7월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 ('16.2) 8,118원/100g → ('17.2.10) 7,829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16.2) 1,858원/100g → ('17.2.10) 1,784

* 우유 소비자 가격 : ('16.2) 2,535원/ℓ → ('17.2) 2,515

* 우유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유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올해 7월까지 원유가격은 922원/ℓ이 유지됨

○ 닭고기 가격은 상승세이며,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약 44% 높은 수준이나 하락세이다.

* 닭고기 소비자가격 : ('16.2) 5,107원/kg → ('17.2.10) 5,400

* 계란 소비자가격 : ('16.2) 1,824원/10개 → ('17.2.10) 2,631

□ (추진계획) 한우 등은 수급 모니터링 강화 및 소비촉진 홍보에 중점, 계란·닭고기는 공급기반을 조기 안정화할 계획이다.

○ 중간 유통상인의 사재기, 축산물 가격상승에 편승한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엄정 대응하고,

○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체 유해성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과도한 소비 감소를 방지하는 한편

* ① 감염 가축 모두 살처분, ② 구제역은 우제류에만 감염

○ 축산자조금(한우 94억원, 한돈 54)을 활용하여 할인행사 등 추진과 함께 산란종계 수입(9.5만수β월말까지), 산란계 수입(52만수β월말까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V. 방역 협조 및 당부 사항

- (축산농가) 축사를 출입할 때에는 방역복과 전용 신발으로 갈아 신고, 매일 축산 농장 내·외부를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시고,
 -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시는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셔야 하며,
 - 농장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철저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운송, 집유 등)의 내부(핸들, 발매트 등)·외부(차량바퀴, 적재함 등)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 축산 농가의 모임은 하지 마시고, 구제역과 AI 발생국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제역 또는 AI 의심 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1588-9060, 1588-4060)하여 주셔야 합니다.

- (국 민)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축산 농장, 축산시설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구제역 또는 AI 발생 농장 인근이나 지역에서 이동통제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나 시설을 방문하였다면 귀가 후 여행 중 입었던 옷, 신발, 물품은 세척·소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5일간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 부)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 1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현황

구 분	'00년	'02년	2010년		
			'10.1월(포천)	'10.4월(강화)	'10/11년(안동)
발 생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 (소 15) ※3개도 6개 시·군 -경기 파주 화성·용인 -충남 홍성 보령, 충 -북 충주	○5.2~6.23 (53일간) ○16건(소1, 돼 지 15) ※2개도 4개 시·군 -경기 안성·용인·평 -택, 충북 진천	○1.2~1.29 (28일간) ○6건(소6) ※1개도 2개 시·군 -경기 포천·연천	○4.8~5.6 (29일간) ○11건(소7, 돼 지4) ※4개시도4개시·군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10.11.28~ '11.4.21(145일간) ○3748건(소1935, 돼지1725, 염소 45, 사슴 43) ※11개 시도 75개 시· 군 -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혈청형	○형	○형	A형	○형	○형
발생원인 (추 정)	○수입건초 ○해외여행객(신발, 휴대축산물)	○외국인 근로자 관 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방 역 조 치	○살처분 182농가 2,216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예방접종 (Ring 백신)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55농가, 5,956두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621농가 3,479,962두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예방접종 실시 (전국 백신)
국 내 종 식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청정국 회복 : '01.8.31	○이동제한 해제 (8.14) 후 ※청정국 회복 ('02.11.29	○이동제한 해제 (3.23) 후	○이동제한 해제 (6.19일) 후 ※청정국 회복 ('10.9.27)	○최종 발생 일 : '11.4.21(경북 영천) ※백신청정국 ('14.5.29)
재 정 소요액	○2,725억원 -보상금 71 -수매 2,428 -소독 등 202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23.7	○1,058억원 -보상금 531 -수매, 소독 등	○272억원 -보상금 93 -수매, 소독 등	○1,040억원 -보상금 637 -수매, 소독 등	○27,383억원 -보상금 18,337 -수매, 소독 등

구 분	'14년	'14~'15년	'16년
발 생	○7.23~8.6 (15일간) ○3건(돼지3) ※2개도 3개 시·군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14.12.3.~ '15.4.28.(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7개 시·도, 33개 시·군 -인천2, 세종2, 경기56, 강원 11, 충북36, 충남70, 경북8	○'16.1.11.~'16.1.13. (전북_3일간), 2건 ○'16.2.17.~'16.3.29. (충남_41일간), 19건 ※2개 시·도, 6개 시·군 -김제, 고창 -공주2, 천안1, 논산14, 홍성2
혈청형	○형	○형	○형
발생원인 (추 정)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조사중
방 역 조 치	○살처분 3농가 2,009두 *돼지2009 ○전국 예방접종	○살처분 196농가, 172,798두 *돼지172,721소70,사슴7 ○전국 예방접종	○살처분 25농가, 33,073 두 *예방적살처분4농가 *돼지33,073 ○전국 예방접종
국 내 종 식	○이동제한 해제(9.4)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이동제한해제(5.22)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이동제한해제(4.27)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 은 하지 않음
재 정 소요액	○약 17억원 추정 -보상금 5 -소득 등 12	○약 638억원 -보상금 454 -생계·소득 19 -소득 등 165	○59억원 -보상금 59 -소득 등

참고 2

방역조치 대상 및 가용자원

□ 조치대상

구분	방역조치 대상
우제류 농가 (KAHIS 기준)	○ 전체: 147,148농가 / 1,500만마리 - 소 (119,614농가 / 3,374,510마리) - 돼지 (7,416농가 / 11,488,642마리) - 사슴 (2,937농가 / 34,635마리) - 염소 (17,181농가 / 407,833마리)
차량 (GPS 부착 기준)	○ 전체: 48,741대 - 사료(10,045대), 분뇨(1,769대), 동물약품 (991대) - 왕겨, 쌀겨, 통밥, 깔짚(766대), 기타 (35,170대)
도축장 / 가축시장 (KAHIS 기준)	○ 120개소 / 110개소
축산관계자 (축산업 및 국경검역관리시스템 등록기준)	○ 전체 437,356명 - 직접종사자 (155,037명), 관리인(282,356명)
사료공장 (KAHIS 기준)	○ 289개소

□ 가용자원

구분	가용자원
1. 방역예산	(’16) 2,265억원 → (’17) 2,032
1) 시도가축방역	(’16) 1,126억원 → (’17) 1,078
2) 살처분 보상금	(’16) 600억원 → (’17) 400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6) 385억원 → (’17) 405
4) 가축방역(검역본부)	(’16) 154억원 → (’17) 149
2. 방역인력	2,498명
1) 중앙(농식품부, 검역본부)	234명
2)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	660명
3) 공중방역수의사(군복무 대체)	469명
4) 방역지원본부(방역사)	291명
5) 공수의사(민간 위촉)	844명
3. 방역시설	
1) 중앙(검역본부)	진단, 평가, 연구시설(8과)
2)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	17 본소, 27 지소

참고 3

구제역과 AI 해외 발생 동향

□ 구제역

연도	국가	혈청형	
		O	A
2016	중국	4	-
	몽골	-	1
	사우디아라비아	-	1
	쿠웨이트	12	-
	모리셔스 공화국	163	-
	러시아	3	-
	캄보디아	1	1
	태국	97	20
	라오스	-	-
	베트남	6	5
	말레이시아	17	2
	미얀마	10	-
	계	313	30

□ 고병원성 AI

연도	국가	혈청형	
		H5N6	H5N8
2016	나이지리아	2	1
	베트남	7	
	일본	7	
	중국	7	
	가나		2
	네덜란드		6
	대만		15
	독일		23
	세르비아		3
	스웨덴		1
	영국		1
	오스트리아		1
	이란		12
	이스라엘		13
	이집트		1
	인도		28
	폴란드		21
	프랑스		95
	쿠웨이트		1
	크로아티아		1
	헝가리		176
합계	23	401	

참고 4

축산물 가격 동향

품 목		전년동월 평균('16.2)	전월평균 ('17.1)	'17.2.10	전년대비 등락		전월대비 등락	
					금액	%	금액	%
한우 (1등급)	소비자 (원/100g)	8,118	7,803	7,829	- 289	- 3.6	+ 26	- 0.3
	도매 (원/지육kg)	17,975	15,687	16,522	- 1,453	- 8.1	+ 835	+ 5.3
돼지 고기	소비자 (원/100g)	1,858	1,914	1,784	- 74	- 4.0	- 130	- 6.8
	도매 (원/지육kg)	3,990	4,638	4,371	+ 381	+ 9.5	- 267	- 5.8
닭고기	소비자 (원/kg)	5,107	5,062	5,400	+ 293	+ 5.7	+ 338	+ 6.7
	도매 (원/kg)	3,362	2,435	3,898	+ 536	+ 15.9	+ 1,463	+ 60.1
계란	소비자 (원/10개)	1,824	3,032	2,631	+ 807	+ 44.2	- 401	- 13.2
	도매 (원/10개)	1,448	2,344	1,889	+ 441	+ 30.5	- 455	- 19.4
우유	소비자 (원/ℓ)	2,535	2,515	2,515	- 20	- 0.7	-	-
	원유 (원/ℓ)	940	922	922	- 18	- 1.9	-	-

1) 생산액('15) : 한우 4조4천억원, 돼지 6조9천억원, 닭고기 1조9천억원, 계란 1조8천억원

2) 자료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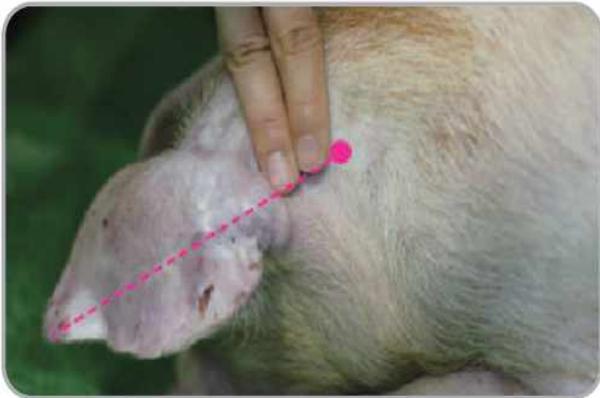
- 한우·돼지고기 지육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육 경락가격 발표자료
- 한우·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자료
- 닭고기·계란 도매·소비자가격 : 농협중앙회 조사자료
- 우유 원유가격 : 원유가격연동제 '16년 원유기본가격('16.8~'17.7)
- 우유 소비자가격 : 한국물가협회 제공자료

□ 보관, 운송, 사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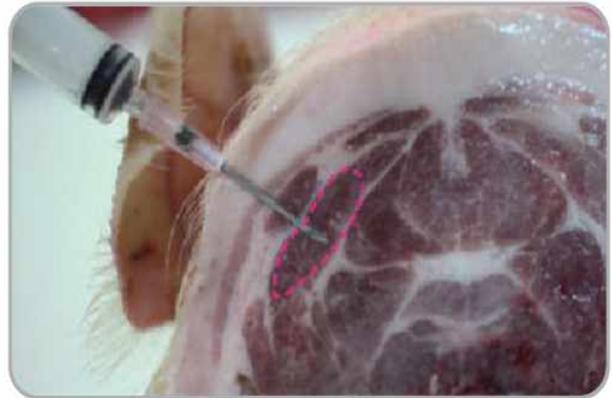
- ①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2~8℃)로 보관
 - 백신이 얼거나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될 경우에는 백신의 성분이 손상되어 효능이 저하될 수 있음
- ② 백신을 운반할 때에는 냉장상태(2~8℃)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 아이스박스를 사용할 경우는 냉장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냉매(얼음팩 등)를 동봉하고 드라이아이스는 사용 금지
 - * (주의사항) 백신이 냉매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③ 구제역 백신은 오일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낮은 온도에서는 점도(뽀뽀한 정도)가 높아 접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15~25℃)에 놓아 두었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시간 내(2~3시간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내온도 측정을 위하여 온도계를 비치
 - 항온수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백신이 열판에 직접 접촉되어 설정 온도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수조의 물에 의해 뚜껑부분이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④ 백신접종 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병을 천천히 위, 아래로 20회 정도 흔들어 고르게 섞어 줌

□ 접종시 주의 사항

- ⑤ 소, 사슴, 염소는 어깨부위 근육에 접종하고, 돼지는 목 부위·귀 뒤 근육에 접종
- ⑥ 접종 할 때 주사바늘이 비스듬할 경우에는 지방층에 백신이 주입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하여 근육에 접종
- ⑦ 구제역 백신은 점도가 있는 오일백신이므로 접종시 근육내로 완전히 주입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
- ⑧ 주사바늘이 오염되었거나 끝부분이 뭉뚝해진 주사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종부위에 염증(화농)이 발생 할 수 있음
- ⑨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백신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접종



| 귀 정중앙을 따라 귀 뒤로 손가락 2개(약 2~3 cm)정도 끝나는 부분



| 근육(빨강색 점선) 안에 정확하게 주입

□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문의

참고 6

연천의 구제역 A형 바이러스 유전자 및 백신매칭 분석

□ 유전자 분석

- (계통) A ASIA Sea-97 유전형(genotype)
- (상동성) '16년 베트남(소, 돼지) 바이러스와 99.8%, '16년 미얀마(소) 바이러스와 99.7%, '13년 중국 광둥성(돼지) 바이러스와 99.5%, '10년 포천(소) 바이러스와 91.41%

바이러스명	발생이력	상동성(%)	자료출처
VIT/14/2016	16년/베트남/소	99.8%	WRLFMD
VIT/16/2016	16년/베트남/돼지	99.8%	WRLFMD
MYA/2/2015	15년/미얀마/소	99.7%	WRLFMD
MYA/4/2015	15년/미얀마/소	99.7%	WRLFMD
MYA/3/2015	15년/미얀마/소	99.7%	WRLFMD
TAI/17/2014	14년/태국/소	99.5%	WRLFMD
GDMM/CHA/2013-S	13년/중국/돼지	99.5%	NCBI
GZ-ZB/CHA/2013	13년/중국/소	99.5%	WRLFMD
TAI/12/2015	15년/태국/돼지	99.5%	WRLFMD
TAI/24/2015	15년/태국/소	99.5%	WRLFMD
.....
A/Pocheon/001/Kor/2010	10년/한국/소	91.41%(585/640)	NCBI

□ 백신 매칭 분석

-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자료 분석 결과, A ASIA Sea-97형 연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유사한 13개의 분리바이러스 중 11개가 현재 국내 소에 사용하는 백신주(A22 IRQ)와 매칭

군주	혈청형	지역형	유전형	A Iran-05	A/TUR/20/2006	A22 IRQ	비고
A/MOG/11/2013	A	ASIA	Sea-97	M	M	M	
A/MOG/13/2013	A	ASIA	Sea-97	M	M	M	
A/MOG/1/2013	A	ASIA	Sea-97	M	M	M	
A/MOG/5/2013	A	ASIA	Sea-97	M	M	M	
MAY/15/2014	A	ASIA	Sea-97	N	N	M	
TAI/20/2016	A	ASIA	Sea-97	N	N	N	
TAI/23/2016	A	ASIA	Sea-97	M	N	M	
MYA/2/2015*	A	ASIA	Sea-97	M	N	M	
MYA/5/2015	A	ASIA	Sea-97	M	N	M	
TAI/1/2015	A	ASIA	Sea-97	M	N	M	
TAI/4/2015	A	ASIA	Sea-97	M	N	M	
TAI/5/2015	A	ASIA	Sea-97	N	N	N	
LAO/1/2015	A	ASIA	Sea-97	M	N	M	추가 분석 (2.11)

- MOG: 몽골, MAY: 말레이시아, MYA: 미얀마, TAI: 태국, LAO: 라오스

- M: 매칭, N: 비매칭

* 미얀마 분리주는 연천바이러스와 VP1 유전자 상동성 99.7%로 염기서열상 거의 동일한 바이러스로 판단됨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따라 나들이 가세요

- ◇ 매화, 복수초,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 봄 야생화 개화
- ◇ 국립공원별 봄꽃 관찰시기와 장소 등 봄철 탐방정보 공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국립공원의 봄꽃 개화소식과 함께 국립공원별 야생화 관찰시기, 장소 등 봄철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공개했다.
- 올해 첫 봄꽃 소식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매화로 알려진 춘당매가 2월 4일 꽃망울을 터트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 남쪽 지방 국립공원인 무등산과 내장산에서는 야생화인 복수초,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노루귀 등이 2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했으며, 설악산국립공원에서도 노루귀 등 야생화가 일부 개화를 시작했다.
 - 변산반도,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도 2월 말부터 복수초, 노루귀, 산자고, 솜나물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 지리산국립공원은 산수유마을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를 시작으로 3월 초부터 노란빛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하며, 4월 중순이면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되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국립공원은 공원 진입도로의 벚꽃나무가 4월 중순부터 장관을 이루고, 5월에는 소백산 국립공원 연화봉 일대의 철쭉이 만개할 예정이다.
- 최승운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 “각 공원별로 개화시기에 따

라 국립공원을 방문한다면, 봄 소식을 전하는 야생화와 함께 봄
기운을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붙임 1. 국립공원별 봄꽃 관찰시기 및 장소.

국립공원별 봄꽃 관찰시기 및 장소

공 원	봄 꽃	볼 수 있는 곳	개화시기	절정시기
한려해상	동백나무	지심도, 내도, 학동	2월 초	3월 중
	등대풀	서이말등대	3월 초	3월 중
다도해 해상	동백나무	거문도 등대가는 길, 보길도	2월 중	3월 중
	길마가지나무, 붉구슬봉이	정도리구계등 방풍숲	3월 초	3월 중
	진달래, 현호색	홍도1구~2구 탐방로	3월 중	4월 중
월출산	얼레지	도갑사~역새밭 탐방로	3월 중	3월 말
	동백나무	무위사 자연관찰로	3월 중	4월 중
지리산	얼레지	유평마을	3월 중	3월 말
	히어리, 생강나무	땀사골 계곡	3월 말	4월 중
	산수유	지리산 마을 인근	3월 말	4월 중
무등산	복수초	약사사~용추계곡	2월 중	3월 중
		만연산지구 일원		
	산자고	평두메 일원	3월 말	4월 말
변산반도	남산제비꽃	내변산 탐방로	3월 중	3월 말
	노루귀	내변산~실상사	3월 초	3월 중
계룡산	복수초	천정계곡 탐방로 주변	3월 초	3월 중
덕유산	너도바람꽃, 복수초	삼공리~백련사탐방로 적상분소 일원	3월 중	3월 말
치악산	복수초, 노루귀, 너도바람꽃	구룡사 및 금대리 탐방로	3월 초	3월 말
설악산	변산바람꽃	신흥사일원	3월 초	3월 말
소백산	노루귀, 너도바람꽃	삼가동 자연감성지구	3월 중	4월 초
속리산	산괴불주머니	세심정~문장대 탐방로	3월 중	3월 말
	노루귀	화양탐방지원센터~도명산	3월 말	4월 중
월악산	복수초	만수계곡자연관찰로 내	3월 초	3월 말
	처녀치마	만수계곡자연관찰로 내	3월 말	4월 중
주왕산	생강나무, 노루귀	상의지구 주왕계곡	3월 중	4월 초
	얼레지	주봉탐방로	3월 중	4월 말
경주	노루귀,복수초, 현호색	시부거리 ~ 토암산탐방로	2월 말	3월 중
	앵초		4월 초	4월 중
가야산	생강나무, 진달래	청량사~남산제일봉	3월 말	4월 초
	얼레지	해인사~마애불삼거리탐방로	3월 중	4월 초
내장산	노랑붓꽃	남창자연관찰로	3월 말	4월 초
	얼레지		3월 중	3월 말
	고불매	백양탐방지원센터~백양사	3월 중	3월 말
	평의바람꽃		3월 말	4월 초

장애인 공무원 준비, 이렇게 하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와 함께 전국 5개 권역별 '2017년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17년 장애인 공직설명회' 를 개최한다.

<설명회 일정>

- ❖ 대구·경북권 3.2(목)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 충청권 3.3(금) 코레일 충남지역본부 5층 인경실
- ❖ 수도권 3.6(월) 서울역 KTX 대회의실
- ❖ 부산·경남권 3.7(화) 부산역 2층 해운대실
- ❖ 광주·전라권 3.8(수) 광주역 3층 무등산실에서 열린다.

- 인사혁신처·국방부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2017년 국가직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정보, 군무원 채용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장애인공무원 선배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 소개와 공무원 면접 특강도 마련하였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진 장애인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2017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선정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취업사관학교’의 2017년도 운영기관 9개소를 선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 이번 운영기관 선정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 과정의 편성 및 정책 대상과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2017년도 취업사관학교 운영 기관(9개소)>

연번	지 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1	서울특별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 가공조립
2	서울특별시	애 란 원	간호조무사
3	대구광역시	한국디지털 직업전문학교	컴퓨터응용 기계설계제작
4	인천광역시	인천실용 전문학교	헤어, 네일아트
5	충남 아산시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제과제빵
6	충남 천안시	동천안 직업전문학교	헤어미용
7	전북 익산시	원광 보건대학교	헤어미용
8	전남 광양시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9	경남 창원시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헤어, 피부,네일아트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직업훈련이 청소년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소년 한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대상을 특화한 직업훈련 과정을 새롭게 운영하며, 청소년의 선호가 높고 취업에 유리한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등의 과정을 신규 도입한다.
- 청소년이 훈련 도중에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사관학교

인근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 훈련생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해 훈련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검정고시반 운영 등 학력취득 기회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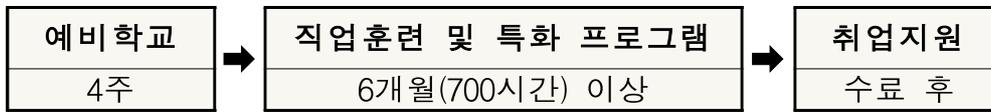
- 취업사관학교는 6개월(연 7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 수료 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며,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전문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 훈련과 기숙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 * 기숙사 제공 여부는 훈련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자립장려금은 월별 수업일의 80% 이상 출석 시 지급
 - 신청은 2.13.(월)부터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또는 꿈드림센터(www.kdre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취업사관학교를 연계하여 직업교육 훈련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탈락 없이 원활하게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취업사관학교 사업 개요 1부.
2. 취업사관학교 훈련생 주요 우수사례 1부.

붙임 1 취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 지원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훈련기간) 6개월(700시간) 이상(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 (훈련직종)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직종으로, 난이도 및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17년 미정)
- (훈련과정)



- 예비학교 : 직업훈련 시작 전 훈련과정 안내 및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 등을 통한 훈련생의 적응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직업훈련 외에 검정고시 준비,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지원사항)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지원 등
 - * 출석률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 지원(월별 수업일의 80% 이상 출석 시)

□ 2017년 취업사관학교 현황

연번	지역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시간	모집인원	기숙사
1	서울특별시	도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 가공조립	1,450시간 (10개월)	50명	제공
2	서울특별시	애란원	간호조무사	1,700시간 (10개월)	15명	제공
3	대구광역시	한국디지털 직업전문학교	컴퓨터응용 기계설계제작	1,140시간 (9개월)	20명	제공
4	인천광역시	인천실용 전문학교	헤어, 네일아트	1,660시간 (9개월)	15명	출퇴근
5	충남 아산시	아산시 건강기정 다문화지원센터	제과제빵	780시간 (10개월)	20명	출퇴근
6	충남 천안시	동천아 직업전문학교	헤어미용	1,200시간 (10개월)	20명	제공
7	전북 익산시	원광 보건의대학교	헤어미용	1,085시간 (10개월)	20명	제공
8	전남 광양시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1,426시간 (11개월)	30명	제공
9	경남 창원시	에스테리아 미용직업전문학교	헤어, 피부, 네일아트	1,500시간 (10개월)	20명	제공

붙임 2 취업사관학교 훈련생 주요 우수사례

연번	취업사관학교명	이름	주요내용
1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최00 (만 2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의 이혼 후 방황하던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16년에 취업사관학교 입교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최군은 2개 분야(전기, 특수용접) 자격증을 취득하고 광양시 주최 용접기능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뽐내기도 함 ○또한 검정고시 학습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까지 취득한 최군은 훈련 수료 후 조선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후배 훈련생의 멘토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2	광양만권 HRD센터 (특수용접)	김00 (만 2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16년에 취업사관학교 입교 ○훈련에 참여하면서 전기용접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배운 기술을 활용해 학교 내 시설물을 직접 제작·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중공업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지속하여 '17년 7월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임
3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이00 (만 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황하던 중 6호 처분시설에서 취업사관학교를 안내받고 '16년에 입교 ○적대감과 도벽 등으로 훈련초기 단체생활 적응이 어려웠으나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음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기계가공 회사에 취직해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
4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조립)	정00 (만 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폭력성향으로 비행과 처분을 반복하던 중 '16년에 취업사관학교로 연계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계에 흥미를 느끼게 됨 ○훈련과정 수료 후 기계가공 회사에 취직하여 잘 적응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직장생활을 소개하는 등 멘토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버스·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연속 운전시간 제한최소 휴게시간 보장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 7. 27)」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 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버스 운전자의 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 ①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

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②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③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 ①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②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갖되, ③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 보장)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참고】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

구분	기본 휴게시간		연장된 휴게시간		휴식시간
	노선운행 종료 후	운행 중	노선 운행시간 2시간 이상	노선 운행시간 4시간 이상	
시내·농어촌·마을버스	10분 이상	-	15분 이상	30분 이상	8시간
시외(고속)버스	15분 이상	15분 이상 (2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1시간 연장운행 시)		
전세버스	15분 이상 (목적지 도착 시)				

- (법령위반 중사자 처분 강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 (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강화)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

-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 하였다.

- (전세버스 관리 강화)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

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CNG 버스 면허기준 완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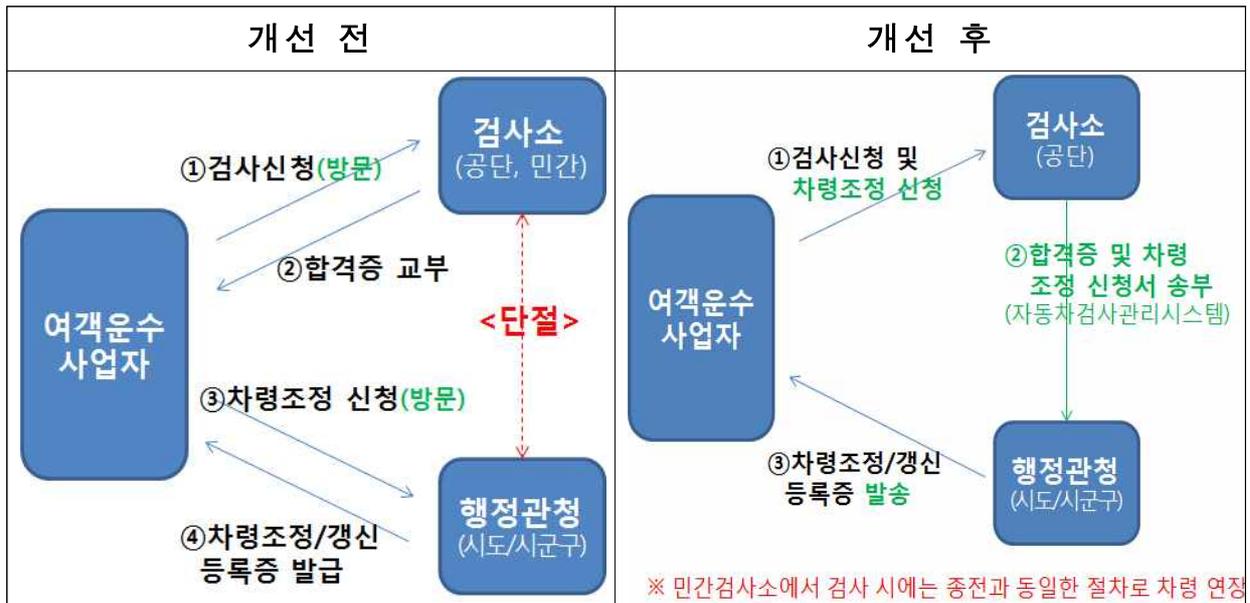
-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 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 (원 스톱(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명태야, 다시 만나 반가워!

- 작년 6월 속초서 표지 달아 방류한 명태, 양양에서 다시 잡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6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표지를 달아 방류*한 명태가 2월 25일(토)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앞바다에서 다시 포획되어 방류 명태가 자연에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 표지(TAG) 방류 : 명태 몸통에 인공적으로 인식표를 부착한 후 방류하여 재포획시 방류 개체의 이동, 성장 등 생태학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획된 명태는 방류한 후 8개월 만에 몸길이 10.1cm(28.7cm→38.8cm) 가량 성장하고 몸무게 215.5g(191g→406.5g) 가량 증가하였으며 방류지점에서 남동 방향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 명태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및 강원양식생물연구소와 협력하여 방류한 명태 1천 마리 중 1마리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산 명태의 수정란으로부터 부화한 인공 1세대 명태를 동해에 방류하는 사업을 2015년12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그 동안 방류한 명태가 동해에 정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명태완전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인공종자 전문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방류용 명태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방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방류 명태에 이번과 같이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 및 분포 특성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를 진행하여 동해에서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방류한 명태가 동해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월에 이어 재차 확인되어 명태자원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며, “앞으로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표지방류 명태 정보

- 방류일시 : 2016.06.22.
- 방류장소 : 속초시 대포항(수심 100m)
- 표지방류 개체수 : 총 1,000마리
- 표지방류 크기
 - 전장 18.1~37.2cm(29.9cm) / 중량 84~446g(225.3g)

<방류를 위해 표지표가 부착된 명태>



□ 재포획 명태 정보

- 재포획 일시 : 2017.02.25.
- 재포획 장소 : 양양군 수산항 해역(수심 83m)
- 재포획 개체수 : 1마리
- 표지번호 : 390번
 - (방류) 28.7cm, 191.0g => (재포획) 38.8cm, 406.5g(8개월간 10.1cm, 215.5g 성장)

<재포획 명태 사진>

